

주 석

(일기 날자순서대로)

- * 여필(汝弼)-충무공의 아우 우신(禹臣)의 자다.
- * 동헌-각 고을의 원이나 도의 병사 수사들이 사무를 보는 곳.
- * 별방-부대 편성의 한 부류로 별조방(別助防)의 약어
- * 전문-나라에 길흉의 일이 있을 때 임금에게 바치는 표문(表文)이다.
- 주로 사육체(四六體)의 글인데, 여기서는 새해를 하례하는 글을 말함이다.
- * 객사-옛날 각 지방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목패(木牌)를 만들어 놓고 그 지방의 관리들이 위하던 집, 그 목패는 전패(殿牌)라고 한다.
- * 방답의 새 첨사-장군의 이름과 음이 같은 이순신(李純信)
- * 해자-호자(豪子)로서 우리 말로 해자이다. 그러므로 한자로 해자(垓子)라고도 쓴다. 성 밖에 못을 파서 방위하는 것을 말함.
- * 망궐레-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초하루, 보름에 대궐을 향하여 멀리 임금께 절하는 예를 이 름이다.
- * 버슬아치-원문의 품관(品官)은 여러 종류의 버슬아치들을 통틀어 이름이다.
- * 색리-옛날 제도에 감영(監營) 또는 고을의 아전을 이름이다.
- * 곤장-옛날 제도의 형구(形具)의 하나인데,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들어 군법을 어긴 죄인의 볼기를 치는 것이다. 그 종류는 크고 작은 5가지가 있다.
- 중곤(重棍) 길이 5척 6촌 넓이 5촌 두께 8푼
- 대곤(大棍) 길이 5척 6촌 넓이 4촌 4푼 두께 6푼
- 중곤(中棍) 길이 5척 4촌 넓이 4촌 1푼 두께 5푼
- 치도곤(治盜棍) 길이 5척 7촌 넓이 5촌 3푼 두께 1촌
- * 우후-지방 병사영(兵使營)이나 수영(水營)에서 첨사(僉使)아래 있는 버슬의 하나이다.
- * 반자-본시 한문에서 온 문자인데, 고을 수령(守令)을 보좌하는 직책을 말함이다.
- 통판(通判)이나 장사(長史)니 하는 것들을 통틀은 이름이니 우리 나라에서는 아전이란 말과 같이 쓰였다.
- * 천자배-천자의 글자 순서를 따라서 번호를 삼은 것으로서 제1호에 해당한 것.
- * 우등 계문-활 재주 시험에서 우등한 사람들에 대한 보고
- * 대가 단자-대신 가자(加資)할 단자. 이조의 관제(官制)는 9품에서 1품까지 있고 아래 품에서 윗품으로 올리는 것은 가자(加資)라고 하는데, 어떤 사람의 공을 가지고 그 본인을 올리 지 않고 그 아들이나 사위 등을 올리는 것을 [대신 가자]라고 한다.
- * 좌기-어떤 관청의 우두머리들이 정규의 위의를 갖추어 공무 집행의 절차를 밟는 것.
- * 사복시-임금이 타는 말을 관리하는 관청.
- * 순-활을 쓰는데 1순이라 함은 1바퀴란 말이다. 각 사람이 화살 5대씩 쏘기를 마치면 그 것을 1바퀴(1순)라 하는 것이다.
- * 해운대-여수시 동쪽에 쑥 내어민 조그마한 반도인데, 해안 절벽에 [海雲臺]라고 새긴 충 무공의 필적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산책 하던 곳이더니, 여수 외항(外港)을 매출할 때에 해 운대 전체를 헐어다가 축항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 형적조차 없어지고 말았다.
- * 침렵치-무사들의 놀이인듯 한데 미상이다.
- * 나장-여기서는 고을이나 병수사(兵水使) 영문에 있는 사령(使令)을 말함이다.
- * 신구번-각지의 군대는 각 고을 사람들이 새로 번을 들러 오고 그대신 먼저번에 들었던 사 람이 나가서 일정한 기한을 두고 항상 교대하게 된다. 이렇게 새로 번 들러온 사람이 신번 이요, 오래 전에 번을 든 사람이 구번이다.
- * 공사례-옛날 무관(武官)이 상관을 처음 볼 때는 공식적인 인사와 사적인 인사의 두 가지

절차가 있었다.

- * 긴 편전- 긴 화살이라고 한다. 광대싸리, 대, 쇠, 새의 깃, 쇠사슬, 복숭아 나무껍질, 아교 등 일곱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, 무게는 1냥 혹은 1냥 반이나 된다.

전쟁 때 쓰는 중요한 화살이다.

- * 감고-검사의 임무를 맡는 낮은 벼슬아치 이름.

* 경강선-서울 한강에 근거를 두고 각 지방을 왕래하는 배들

- * 노대석-첨입 지역에 왕래하거나 그 지역과의 연락을 담당한 배인듯 하다.

* 황옥천-임진 2월 19일 기사 참조, 여도 권관이었다.

* 영공-이조 때 당상(堂上)의 벼슬을 한 사람에게 쓰는 존칭

- * 공장-수령(守令)이나 찰방(察訪)이 감사(監司), 병사(兵使), 수사(水使)들에게 공식으로 만날 때에 내는 관직명을 적은 편지

- * 독제-옛날 제도의 독(蠹)은 군중에서 대장 앞에 세우는 기인데, 큰 삼지창에 붉은 삭모(毛)를 많이 달았다. 그런데 독제는 그 기에 지내는 제사다.

* 탐후선-그 지방에서 출전한 부대와 연락을 위해서 왕래하는 배

* 영리-순영(巡營) 또는 병영 등에서 일하는 아전

- * 고목-미천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

* 노비 단자-지방 관리들이 사신의 노비로 올려 보내는 물품들의 명세서

- * 부찰사-부체찰사(副體察使)의 준말, 도체찰사보다 1급 낮은 벼슬로 도체찰사나 마찬가지로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임시 파견된 고관

* 표신-옛날 제도에 급한 사변을 전할 때에 가지고 가는 표

- * 초요기-군기의 1가지, 대장이 장수들을 부르고 지휘하고 호령하는 기

* 조도 어사-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

- * 패자-높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낮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

* 옳지 못한 일-경상 우수사 원균이 공을 탐내어 무고한 사람의 머리를 베어다가 왜적의 머리라고 보고한 것이다. 지난 달 28일에 그의 군관들이 섬을 들락날락한 것도 그런 것이었으니와 지금 이 영남의 이야기에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은 원균의 부하에게 붙들려 가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온 사람들이다.(임진 3월 초2일)

- * 답청절-봄날 푸른 풀을 밟는다는 데서 생긴 풍속인데, 원래 중국에서는 정월 8일 또는 2월 등으로 정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나 뒤에는 3월 3일로 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역시 3월 3일을 답청일로 하였다.

* 쇠고기(桃林)-중국 고대에 주나라(周) 무왕(武王)이 도림(桃林...[도원(桃原)])이라고도 하는 지금 하남성 영보현(靈寶縣)에 소를 놓아 버린 일이 있었던 바, 그때문에 일종의 속담 문자로 소나 쇠고기를 도림(桃林)이라고 쓰게 된 것이다.

- * 은청금자광록대부-중국의 작품인데, 사실은 은청(銀靑)과 금자(金紫)가 서로 다른 작품인 것을 혼동해서 적었다.

* 송시랑(宋侍郎)-명나라로부터 조선에 파견된 시랑(侍郎) 송응창(宋應昌)

- * 흑각궁(黑角弓)-검은 각궁이다. 각궁은 후궁(候弓)이라고도 하고 장궁(長弓)이라고도 하는데, 전쟁 때나 사냥할 때에도 쓴다. 옛날부터 우리나라 각궁이 유명했으며 쓰는 이의 힘에 따라 강한 것, 연한 것이 있는데 각궁(強弓), 실중력(實中力), 중력(中力), 연상(軟上), 연하(軟下)등 중별이 있다.

* 소포(幬)-우리 말로 소포다. 소포는 본시 배로 과녁을 만든 것인데 후(候)로도 통한다. 중국 고대에는 활 잘 쏘는 것으로써 인물을 선택한 것이다. 잘 맞히는 자는 작위를 봉하였다. 제후(諸侯)란 문자도 그 때문에 생겼다고 전한다. 훈몽자회(訓蒙字會)에 이 글자의 뜻을 솔이라 했는데, 솔은 우리 나라 옛말임을 알겠고, 솔표(布)가 소포로 된 것이다.

* 추로-추로수(秋露水)라고도 한다. 약술의 한 가지

- * 온백원(溫白元)-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에 가장 잘 듣는 약인데, 충무공은 언제나 위장이 좋지 못하여 이 약을 복용하였던 것이다.
 - * 야불수(夜不收)- 중국의 속어이니 군중의 탐정을 이름이다.
 - * 체자(帖子)- 증명서 또는 어떠한 약속을 확인하는 문서
- * 독운(督運)- 독운 어사(督運御使)의 준말. 사람이나 물자를 징발하기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관원
 - * 용호장- 의병장인 성응지(成應祉)에게 준 특수 칭호다.
- * 행궁(行宮)- 서울 있는 궁전 이외의 지방에 있는 궁전. 여기서는 전주에 머무르고 있는 광해군의 숙소를 가리킴
- * 임금의 분부- 이때 가지고 내려온 유서(諭書)는 [부총(副總)의 지휘를 받으라]고 명령하는 유서다.
- * 기별(奇別)- 승정원에서 처리한 일을 아침마다 적어서 반포한 것이다. 이것이 우리나라 신문의 시초가 된 것이다.
 - * 경수(景受)- 우수사 이억기의 자(字)다.
 - * 명절 제사 음식들-原文의 酸物은 樣物을 잘못 적은 것임
 - * 염(蔭)- 충무공의 막내 아들로, 나중에 면으로 고침
 - * 신은 성이요 사과는 벼슬인데, 오위(五衛)의 정6품으로 군직
- * 의능-전서(全書)에는 이라고도 나오는데, 흥양 의승장(興陽義僧將)이다. 여기서의 공문은 사명대사(泗溟大師)가 승장 의능의 천한 신분을 면해 준다는 공문을 체찰사(體察使 윤두수-尹斗壽) 공문 모양으로 만들어 보낸 것에 대해 그것이 위조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.
 - * 잡문서-각 고을 아전들의 분장한 사무에 대한 서류
 - * 원수-도원수 권율(都元帥)을 이름
 - * 차사원-어떤 임무를 띠고 파견되는 사람
- * 햇불강도-원문에 있는 明火賊은 햇불을 들고 강도질을 하는 것 등을 이름
 - * 의무사-각 부대의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파견된 관리
 - * 권-이름이 빠졌는데 이는 권협(權慄)을 이름이다.
 - * 호익장-익호장으로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킨 김덕령(金德齡)
- * 전서에는 원문이 風亂不溫으로 나왔으나 초고에는 風形不 으로 나와 있다.

(갑오 2월 초2일)

 - * 심유격-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행하던 명나라의 심유경(沈惟敬)
- * 악목과 진회-다 함께 중국 송조(宋朝)때 사람인데, 진회는 전국에 항복하기를 주장한 자로서 충의의 명장 악목을 죽였음
 - * 이-이름이 빠졌으나 이봉(李逢)을 이름이다.
- * ○○-초고 원문에 夫자만 있으니 이는 매부인지 고모부인지, 불분명한 것임
 - * 제홍록-원군의 군관
 - * 이의득-원문에는 李義臣이나 李義得의 잘못임
- * 명나라 도사부 담종인의 [금토 패문]은 그의 웅천(熊川)에 와서 왜적과 강화를 의논하고 충무공에게 패문을 보내어 왜적을 치지 말라고 한 것이었다.

(갑오 3월 25일)

 - * 가왜-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왜인처럼 차린 자, 또는 왜인 노릇을 하는 자
 - * 녹명관-과거를 보일 때 과거 보러 오는 사람의 명단 및 그 밖의 사무를 맡은 사람
 - * 여기 사로잡혀 갔던 아이는 상주(尙州)사람 사삿집 중 희순(希順)을 말한 것이다.

(갑오 3월 25일)]

* 홍패- 옛날 제도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붉은 종이에다 그 성적과 등급과 성명을 적어 주는 것의 이름

* 순무어사- 각지의 군대 또는 백성을 순찰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리인데, 이때의 순무 어사는 서성

* 금오랑-의금부 도사(義禁府都事)

* 구우경-금부에 잡혀 가게 되는 총청 수사 구사직(具思稷)으로 우경은 그의 자(字)다.

* 중기- 옛날 제도에 사무를 인계할 때 전해주는 문부를 이름

* 공명 고신-공명은 이름 적지 아니한 빈 종이란 뜻이요, 고신은 옛날 제도에 직첩(職帖)을 이름이다.

* 보자기- 원문에 作이라 나온 것은 보자기의 이두 표기로서 바닷 속에 들어가서 해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이른다.

* 종정도- 승경도(陞卿圖)라고도 하는 것으로 넓은 큰 종이에 옛 벼슬의 이름을 품계(品階)와 종별(種別)을 따라 써 놓은 그림. 실내 오락으로서 윗 놀듯 말을 써서 내기하는 놀이다.

* 유경- 사명대사(泗溟大師)로도 알려진 종. 전쟁 중 또는 그 뒤까지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을 맡아 했었다.

* 개바라지- 원문의 改破羅之는 바라지의 이두 표기로서 바람벽 위쪽에 낸 작은 창을 이른다.

* 급창- 원문에 及昌으로 나오는데, 우리 속어 급창이의 이두기표이다. 옛날 제도에 군아(郡衙)에 딸린 노복의 한 이름이다.

* 판교- 교지(敎旨)와 같은 말이다. 옛날 제도에 4품 이상의 벼슬을 내려 주는 사령장을 말함이다.

* 조도- 조도 어사(調度御使)의 약어이다.

* 갑오 6월 18일 일기 참조

* 도청- 한 고을에서 원을 도와 사무를 총괄하는 아전

* 병선색- 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색리(色吏)

* 팔군색- 군사를 수색해 내고 또 군대를 보충하는 따위 사무를 담당한 색리

* 심약- 옛날 제도에 궁중에 바치는 약재를 감시하기 위하여 각도로 파견하는 종구품(從九品)벼슬인데, 전의감(典醫監) 혜민서(惠民署)의 의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다. 심약은 신경황(申景潢)이었다.

* 환상- 환자(還子)라고 하는데, 각 고을의 사창(社倉)에서 백성에게 꾸어주었던 곡식을 가을에 받아들이는 일

* 이흥종의 삼촌은 곧 총청수사 이순신(李純信)

* 허씨댁- 누이나 딸 가운데서 허씨(許氏)집안으로 출가한 사람을 부르는 말

* 과하주- 여름을 지내도 시어지지 않은 약주

* 부안 사람- 공의 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안 사람이므로 그렇게 부른 것이다.

* 저서에는 春院으로 나와 있다.

* 전서에는 鄭元溟으로 나와 있다.

* 전서에는 南海懸監으로 나와 있다.

* 헌관- 제사를 지낼 때 술잔을 드리는 사람

* 전사- 제사 제반의 일을 책임 진 사람

* 호의- 우리 속어로 더그래라 한다. 옛날 제도에 각 영문의 군사와 마상재군(馬上才軍) 또는 사간원(司諫院)의 알도(謁道), 의금부(義禁府)의 나장(羅將)들이 입는 세자락 난 옷옷이다. 군사들과 마상재군의 것은 소매가 없고 알도와 나장의 것을 짧은 소매가 있다. 군사들은 전, 후, 좌, 우, 중, 방위를 따라 푸른 빛, 붉은 빛, 흰 빛, 검은 빛으로 각각 그 빛깔을 달리 한다. 그리고 마상재군과 알도, 나장의 것은 길이가 짧으나 군사들의 것은 조금 길다.

* 잘-담비의 털가죽이다. 초피 중의 상품이다.

* 빙부-전 보성 군수 방진(方震)

* 사도(司導)-사도시(司導寺)를 말함이다. 옛날 제도에 대궐 안의 쌀 간장 따위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이다. 태조 원년으로부터 고종 19년까지 있었다.

* 정사준-판관 승복(承服)의 아들

* 왕씨-고려 왕조의 성을 가리킴

* 밀부-옛날 제도에 유수(留守) 감자, 병사, 수사, 방어사 등이 차던 병부를 이름이다가 아니라 寄澄憲이다.

* 언심-어원(彦源)의 잘못된 뜻

* 이종호-지혜와 용맹을 갖춘이로서 충무공이 막하를 삼고 매양 중요한 중요한 일을 맡겼다. 특히 물자 구득에 관한 일을 많이 했다.

* 사과(司果)-옛날 제도에 오위(五衛)의 정육품(正六品) 군사 직위다.

부사직(副司職)의 다음인데 수효는 21사람으로 현직에 있지 않은 문관, 무관, 음관(蔭官)으로써 충당되어 있다.

* 심유경(沈惟敬)-명(明)나라 사람으로 강화를 표방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내왕했다.

* 고목-지체가 낮은 계급의 사람이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

* 곡(斛)-옛날 곡식같은 것을 계산하는 단위, 혹은 10말 혹은 6말로 친다.

* 고재-고재학의 끝트머리

* 육냥궁(六兩弓)-철전(鐵箭)에 육냥(六兩), 아냥(亞兩), 장전(長箭), 세 종류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육냥은 무게가 6냥쯤이요, 아냥은 4냥쯤, 장전은 1냥쯤으로부터 1냥반, 1냥6돈중까지 있다.

* 포폄(褒貶)-각도의 감사가 관하 관리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, 그 평가에서 중(中) 내지 하(下)를 맞으면 사임하는 것이 관례이다.

* 원(元)-병사(兵使)이던 원균(元均)을 말함

* 서유관(宣諭官)-임금의 말 또는 글을 전하는 직책. 임시로 내는 벼슬

* 정승-당시의 영의정인 유성룡(柳成龍)을 가리킴

* 관찰사-초고에 체찰사(體察使)로 되어 있음

* 계()-어떤 목적 아래 조직된 단체

* 중시(重試)-한번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다시 보는 과거

【참고】 초고에 13일로부터 이날(19일)까지 뒷날 적었다고 밝혔다.

* 옛날부터 비가 온다(自古雨)-이조 3대 임금 태종이 아주 가물때 죽었는데 죽으면서 어떻게든지 비를 오게 한다 하더니, 죽은 후 과연 비가 왔으며 그후 그날만 되면 비가 온다고 전한다.

* 명협정(莫莢亭)-초고에는 조협정이라 되어 있는데, 조(藻)는 명(莫)의 오자임.

* 미지-밀 먹인 종이 배 구멍을 때워 막는데 씌

* 하동 원이 보낸 물품에 숫자만 있고 단위가 없으므로 추정해서 괄호안에 적어 넣었음.

* 충무 전서에는 [주인집이 과부집이라 곧 다른 집으로 옮겼다] 主察乃寡婦家 卽移他家라고 잘못 적혀 있다.

* 노마료(奴馬料)-종과 말을 먹일 비용, 즉 군대 복무에 대한 보수

* 연일석(延日石)-경상북도 영일(迎日)에서 나는 몸이 곱고 아름다운 숫돌

* 가라말은 털빛이 검은 말, 위라말은 털빛이 얼룩한 말, 간자말은 이마와 뺨이 흰 말. 유마는 갈기가 검고 배가 흰 말인데, 앞의 두 말은 싸움말(戰馬)이요, 위의 두 말은 짐말(卜馬)이다.

* 중배끼-초고의 中朴桂는 중배기이 이두 표기로서 밀가루를 꿀과 기름으로 반죽하여 장방

형으로 베어 기름에 띄워 지진 유밀과의 한 가지

* 7월 2일부터 10일 3일까지의 간지(干支)가 모두 틀리게 적혔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그대로 고치지 않고 둔다.

* 와가채(蛙歌菜)- 모시 조개로 만든 음식

* 동아선- 동아를 잘게 썰어 기름에 볶고 잣가루를 묻혀 겨자를 찍어먹는 술안주(瓜膳 瓜東饊)

* 배설(裒楔)- 정유년 8월 30일에 충무공에게 병을 치료하겠노라고 청하여 승낙받고 우수영(해남군 문내면)으로 와서는 그길로 9월 2일에 도망치고 말았다. 그의 한산성 패전 죄 때문에 잡으려 했으나 전혀 숨어 있어 잡히지 않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기해(己亥-1599) 3월 6일에 권 도원수(權都元師)가 선산땅에서 잡아 서울로 올려 보내어 사형에 처했다.

* 초유문- 적이나 또는 적에게 붙었던 자들을 너그러운 조건으로 포용하는데 관한 포고 문

* 면사첩- 사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

* 곤장을 친 횟수가 초고에는 [三] 자만 나오고 다음은 찢어져 안 보이는데 [30] 인듯